

2019년 추석 가정예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 121:8]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 도 신 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89장 다 같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 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어 보내 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 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이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합시다. 아멘.

기 도 가 족 대 표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도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고, 온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연약한 가족들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관계의 어려움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 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각자 어디에 있 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 옅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 시어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30:11-12 말 은 이

-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 로 띠 띠우셨나이다
-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 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설 교 말 씀 감사하는 가정 말 은 이

어떤 임금이 하루는 음식 맛이 너무나 좋아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면 그렇게 솜씨가 좋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

“아닙니다. 오늘 가게 주인이 참으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어서 음식이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건을 팔았는가?”

“저는 장사꾼이에요. 농사를 지은 것을 가져다가 팔았을 뿐 제 공로가 아니에요.”

임금은 농사꾼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는가?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었고요. 김 조금 메었고요, 저는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단비 주시고, 적당한 기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셔서 거둔 것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감사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다 있어서,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축복 받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영 죽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샘이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이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어디 가서도 이 하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설교후기도 설 교 자

언제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추석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성묘예배

- * **예식사(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 ○○○님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 **신앙고백(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 * **찬송(다같이):**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 **성경봉독:** 히브리서 11장 13-16절
- * **권면과 위로:** “고향”

추석 연휴가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향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타향에 오래 살아도 그곳은 어디까지나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총리까지 지낸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들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가 되거든 반드시 내 유골도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고 유언했습니다.

성도에게도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언제나 위엿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 * **찬송(다같이):** 491장
- * **주기도문(다같이)**